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저항 패션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간문자

目 次

I. 서 론 .	V. 결 론
II. 학생운동의 성격	참고문헌
III. 학생운동에 표현된 복식	ABSTRACT
IV. 저항 패션으로서의 학생운동 복식	

I. 서 론

학생들의 다양한 주장과 사상을 표현하고 관찰시키는 한 방법으로 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구미 각국에서도 학생들의 주의 주장을 표출하고 성취시키는 여러 방법으로 일으킨 학원소요로 극심한 학생운동을 겪어왔다. 해방 이후 국내에서의 많은 학생 저항운동은 역사적 변천과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복식은 표현의 기능을 가지므로 착용자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표현된다. 저항문화나 시위문화의 경우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저항적 요소를 사용한 특이한 복식으로 자신들의 저항적 상징을 시작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학생운동에서 학생들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표현 도구로 의복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상징하거나 이슈를 나타내어서,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서의 복식은 저항적인 특성과 함께 복식 문화의 한 단면

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시위의 대상에 따라 민족성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하는 저항적 상징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여 시위의 행태에 따라 복장, 도구 등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에서의 복식을 분석하고 복식에 표현된 형태적 특성과 상징적 저항의 특성을 규명하여, 복식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학생 운동에 나타난 저항 패션의 변천과 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분석 자료로는 언론에 등장한 기사와 사진, 신문사, 학보사의 미간행 보유 사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몇몇 운동가들의 증언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II. 학생운동의 성격

우리 나라의 학생운동에 나타난 저항적 복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먼저 학생운동의 쟁점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내 학생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 한다.

학생운동은 시대와 국가 또는 그 사회의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 입장에서 보면, 사회운동¹⁾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세력 또는 계층으로 출현한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고 진행된 정치적 행동을 총칭하는 것이다.²⁾ 학생주도의 집단적, 조직적, 지속적인 사회변혁운동을 가리키며, 체제 그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학생운동의 독특한 도그마이다.³⁾ 국내의 사회운동은 대체로 정치운동의 성격을 떤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운동도 노동운동, 인권운동 등과 함께 이들의 기본적인 투쟁목표는 정치적 민주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우리 나라의 학생운동은 매우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각 시대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⁵⁾ 일제하의 독립운동에서부터 해방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⁶⁾

또한 사회의 비판세력으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80년대 이후 더욱 조직화 급진화되는 경향이어서 아마도 가장 주목받는 받는 사회운동일 것이다. 유석준, 박병영⁷⁾은 국내의 학생운동이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일정한 역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기능적 결과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여서, 학생운동의 외부세력으로 정치적 억압구조, 경제적 배제구조, 국제적 예속구조를 들고 있다.

일찌기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조선시대의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각종 반정부 집단시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⁸⁾ 근대적 의미의 학생운동은 식민시대 서울의 신식학교 학생들이 독립협회가 조직한 가두시위에 참여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제치하의 학생운동은 排日的 민족운동이어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국내에서의 3.1운동,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운동 등의 항일 구국의 성격을 갖는다. 해방 이후에는 신탁통치 찬반을 둘러싼 좌우이념투쟁으로 학생들의 의사표시적 측면이 강하였고, 남북분단으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비정상적인 정치체제가 드세하면서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기초로 하는 학생운동마저도 매우 제한되고 자유롭게 용납되지 않았다. 50년대의 학생운동은 전쟁 이후 각종 정부행사 궐기대회에 동원되는 관 주도 운동 현상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의미의 학생 운동 세력의 출발점은 1960년의 4.19였다. 4.19를 통해 학생운동은 부정부

1) 이상안, *학생운동과 규제정책*, 민음사, 1997, p.65. 재인용. 사회운동은 역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질서창조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集團的企圖 또는 集合的 의지의 표현으로서 제도, 권력, 조직과 구별되며, 행동주체가 역사에 대한 사회통제에 대항하는 집합적으로 조직화된 행동을 의미한다. Alain Touraine, *The Voice and the Eye :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31. 재인용.

2) 韓國現代政治思想研究所, 80년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그 전망. 도서출판 現·恩·研, 1989, p.8.

3) 김영국,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왕사, 1991, p.35.

4) 한상진, 양종희 편저,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 전예원, 1992, pp. 18,19.

5) 유석준, 박병영, “한국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한상진, 양종희 편저, 전계서, p.126.

6) 이상안, 전계서, p.1. 서울대학교 이정복교수가 1988.5월에서 10까지 전국 20세 이상 1650명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민주화에 공헌한 집단으로 학생이 42.4%, 야당이 19.9%, 재야 11%, 여당 10.8%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88.8.17)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전국대학생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0%가 학생데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88.12.1)

7) 한상진, 양종희 편저, 전계서, p.6.

8) 유영익, “학생운동의 뿌리”, 조선일보, 1989.5.13.

때에 써든 나약하고 미성숙한 관료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예상 밖의 혁명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계기로 교육, 문화 부문에 속한다고 할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정치세력화 되는 단초를 열었다. 이러한 흐름은 5.16 이후 1980년대까지 계속된 군사 정권의 위장된 정통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 지식인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⁹⁾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촉매제와 전도체는 학생운동이었고 한국의 학생운동은 국민운동의 선봉이 될 만큼 위상을 갖고 있었다.

1964년 6.3사태와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은 국민적 요구를 대신하는 운동이었고, 학생 데모와 시민 궐기대회를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하였다.¹⁰⁾ 4.19, 6.3사태, 3선 개헌 반대 시위 등으로 대표되는 60년대는 한국 학생운동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으며, 4.19의 경우 학생들에 의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학생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서 학생운동은 성공하였고, 그 후 즉시 학원으로 복귀함으로써 정치세력으로 집단화하지는 않았으나 4.19혁명의 주체라는 인식, 혁명을 집단시위로 관철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효능감을 인식시켜주어 학생시위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5.16이후 제3공화국 하에서의 학생운동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주요 이념이었다. 4.19는 민주주의 혁명이었지만 5.16이후 한일회담 반대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민족주의로 지지되었다. 그러다가 삼선개헌 반대를 계기로 학생운동은 다시 민주주의 수호로 회귀하였다. 30여 년간 계속된 군사독재시대의 통제된 사회에서는 건전한 시민학생운동이 활동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형식화되거나 아니면 급진화되어 지하화되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전개되었다. 이 같은 폐쇄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70년

대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됨과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점차 체제비판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졌다.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개인 학생들의 시위나 노동현장의 침투는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남미로부터 유입된 해방신학 종속이론 등의 영향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사회적 갈등을 부각시킨 민중론이 대두되어 정치상황과 맞물려 사회변혁을 의도하는 반체제 운동이 태동하였다.

학생들의 비판적 정치 의식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계통적 관점과 접합되어서, 군부 정권의 반복되는 정권 탈취에 저항하면서 기성의 정치 체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관성이 학생운동의 특성으로 자리 잡혀갔다. 이 특성은 정통성 없는 정권을 거부하고 정통성 있는 정권을 새로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목표로 삼게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의 성격은 19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4.19 이후 학생운동이 다시 군부의 폐권을 위협하는 수위에 이를 경우는 1980년 5월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30개 대학 10만 여명이 서울역에서 시위의 절정을 이루었을 때였으며, 이 때 재야 세력이 가담함으로써 세력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¹¹⁾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이 단순히 국내 차원에 한정해서 독재에 항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미국이 폐권주의적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제국주의 세력과 분단의식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¹²⁾ 반미시위를 하게 되었다.

80년대 들어 외부의 국민들에게 전달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이고, 둘째는 사회주의적 지향이며, 셋째는 반미 및 통일에 대

9)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1997, p.57.

10) 상계서, pp.58,59.

11) 상계서, p.60

12) 상계서, p.68.

한 주장이다. 이는 학생집단에 저항적 역할을 불러 일으킨 한국사회의 세 가지 지배구조, 즉 정치적 억압, 경제적 배제, 그리고 국제적 예속의 구조에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³⁾ 이 중에서 민주화에 대한 학생운동의 민주화 요구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 일으켜 한국사회에 매우 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학생운동이 통일 전위 세력으로 자처하면서 교과서적인 좌파 논리 대신에 북한의 대남 경제 분석이나 주체 사상을 공공연히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났다.¹⁴⁾

1990년대 이후에는 구 소련과 동구권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상황과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국내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학생운동의 노력은 한총련의 출범으로 나타났다. 한총련은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적 요구대로 밝혀 나가자고 천명하면서 북한 방송에서 내보내는 용어나 분석을 그대로 옮기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보였다.¹⁵⁾

90년대 후반 들어 학생청년들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주체세력에서 다른 그룹들보다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는 과거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핵심 세력이었던 이들이 과거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대안창출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학생운동의 성격이 변모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학내에서 조차도 학생회장 선거에서 운동권이 지배해 왔던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97년 선거에서는 한총련 주사파가 대거 낙선되고 비운동권 학생들이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나 학생운동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언론 매체들은 소수의 친북, 혁명독재, 폭력, 무교양, 전체주의와 획일주의, 광신주의, 그릇된 메시아 사상 등이 학생운동의 전체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학의 학생운동은 교양과 다양성과 문화의식, 그리고 자유정신에 바탕 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사회를 어떻게 더 민주화시키고 공정하게 만들며 법치국가로 만들고 민족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¹⁷⁾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 초에 들어서는 90년대 들어 급속도로 달라진 시대환경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함께 학생운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새로운 위상 찾기에 골몰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혁의 움직임은 운동권내에서 정치투쟁 대신 환경, 인권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학생운동이 80년대 학생운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는 세계적인 탈냉전의 경향과 남북대화의 진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개선, 민주화의 가능성 등을 전제할 때 학생운동의 목표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설정할 근거를 잊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학생운동은 선도적이고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으로 선회할 것이다. 미국의 학생운동이 월남전이 끝난 다음 이념 중심의 운동에서 환경보호 혹은 생명보호 운동으로 쟁점을 바꾸어 왔듯이 한국의 학생운동도 9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감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III.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복식

학생시위 방법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통령 구속처벌, 정권교체와 반미, 반제와 같은 정치적

13) 유석준, 박병영, 전계논문, p.145.

14) 이신행, 전계서, p.71.

15) 상계서, P.72.

16) 강선미, 이기호,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개마서원, 1997, p.56.

17) “학생운동 달라질까”, 조선일보 사설, 1997. 11. 17일

18) 유석준, 박병영, 전계논문, p.151.

저항과 등록금 인상 거부투쟁, 무능교수 퇴진 투쟁, 노조지원, 농민운동 지원, 시위 학생자 추모대회, 횃불 시위, 학생회 출범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이슈에는 70년대부터 있어왔던 교련·임영반대시위, 민주주의 쟁취, 대통령 구속, 반미, 반제구국 등 정치적 이슈 외에 등록금 인상 거부, 무능교수 퇴진, 총장 직선 쟁취, 재단 비리 척결과 같은 학내 문제도 있었으며, 박종철, 이한열과 같은 학생자 추모대회, 학생회 출범식, 노조지원과 같은 여러 이슈들이 범람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시위에 따라 복식이 구분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했다.

국내의 시위 운동 중에서 해방 이전의 학생운동 시위 복식은 당시의 학생복이었던 교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반인들의 시위에서는 고유 복식인 전통 한복과 신식 교육을 받은 자들의 양복이 입혀졌다.

'53년 휴전 반대 시위에서 대학생들은 여름 일상복인 흰색 셔츠에 진한 색의 하의를 입고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사진 1). 휴전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극에 달해 여고생들도 교복을 입고 '북진, 북진'을 외치며 미대사관 앞에서 휴전 반대 시위를 하였다.



〈사진 1〉 1953년 정전 반대 데모,
사진으로 본 해방 30년

해방이후 제 1.2 공화국 시대의 학생운동에서는 4.19 학생들의 혁명에서 보여주듯이 교복 착용이 두드러졌다. 고교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교복 착용이 많았던 시절이라 혁명의 주체 세력인 대학생들의 경우, 4월 18일 스크럼을 짜고 행진하는 고대생들의 데모나 서울대생들의 4.19 데모에서는 자연 교복착용이 많았다. <사진 2>에서 보듯이 교복입은 학생들의 머리에는 '고대'라고 쓴 머리띠를 매어 대학의 명예를 건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는가 하면, 교문을 박차고 나온 탓으로 교모 차림에 책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왔으며, 오후가 되면서 경찰의 곤봉에 맞서기 위해 각목을 들고 참석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4.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후 학생들은 질서회복에 나섰으며, 질서회복을 위한 시위에서 단정한 정장, 교복차림으로 행진하였다.



〈사진 2〉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데모, KOREA 20, p.247.

제 3 공화국에 들어서면서 군사혁명에 대한 혁명지지 데모가 군인,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관계적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어 대학생들도 동원된 인상의 질서와 고교생의 질서 정연한 교복 착용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4.19의 3주년을 맞이하여서 서울대 학생들의 '군정 연장 반대' 시위에서는 교복과 정장으로 당시의 사회 엘리트인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3).

'63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는 학생들이 민족적 반일 감정의 앙금이 표현되어 태극기를 앞세우고 캠퍼스를 뛰쳐나와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



〈사진 3〉 1963.4.19 서울대생들의 데모, 해방 30년사

한 시위를 하였다. 이때 한복 입은 시민들의 시위 지지모습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복장은 대부분이 교복이거나 학생들의 일상복이었다.

70년대 들어서는 유신철폐 시위,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인한 휴교령과 월남 폐망으로 인해 학생시위가 침체되었다가 '79년 부마사태, 광화문 데모 이후 민중 봉기의 기폭제가 되어 80년대의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연계되어 80년대 학생, 노동계, 사회전반에 걸쳐 시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70년대의 복식을 보면 60년대에 이어 초반에는 교복 착용이 많았고, 후에는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장발의 저항적 모습이었고, 통기타에 맞추어 저항적 가요를 부르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시위에서 불려졌던 대중가요 중에는 금지곡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의 저항적 청년문화를 표출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련복을 입기도 했는데. 교련 반대 시위에서 교련복을 입는 것은 교련복이 활동적이었기도 하지만 교련 교육을 반대하는 저항이 내포되어 있기도 했다. 이는 60년대 말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반전 데모에서 군복을 저항적 의미에서 입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경우 영역은 핵(核)→권(圈)→운동체로 이어지는 구조상의 특성을 보이면서 운동체→운동일반→학생부문 일반→민으로 이어지는 파상성을 통해 운동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켜 가는 단계들을 갖추게 되었다.¹⁹⁾ 학생운동의 경우 핵과 권은 각 총학생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각 단과 대학, 학회의 중심인물들, 각 동아리 인물들, 그 밖의 이론·조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외부 그룹과 선배들로 구성된다. 삼민투, 자민투, 민민투, 서대협, 제현그룹, 전대협 등의 운동조직과 이들이 장악하고 있던 출판, 문화, 학술 및 대중조직이 운동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⁰⁾

학생들의 시위를 보면 시작하는 부분의 제례적 성격, 메시지, 제창, 명상 등 전체적으로 예배적인 제사성이 뚜렷해서 시위 후에 연행되는 학생들의 모습은 회생 제물을 상징했다.²¹⁾ 따라서 앞에서 인도하는 학생들의 경우 제주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러한 카리스마는 구별되는 복식인 한복 등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학생운동은 좀 더 조직적이 되어, 평화적 교내 시위를 끌내고 학생 시위 가두진출로 이어져, 5월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10여만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계엄철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학생들은 간편한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만연된 80년대 학생시위 복식의 특징은 민중화가 그려진 단체 티셔츠와 한복과 같은 별도의 시위용 의복이었고, 이러한 복식은 운동권의 이미지를 잘 반영해 주었다.

운동권에서 '기획티(T-shirt)'라고 부르는 한글 표기 혹은 민중화가 그려진 흰색 셔츠의 단체 시위복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단체 티셔츠는 운동권의 동질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셔츠에 그려진 그림이나 문자는 과거에 사용

19) 이선행, 전계서, p.65.

20) 상계서, pp.67,68.

21) 상계서, p.78

되지 않았던 한글 전용이었으며 民의 삶과 사상을 표현하는 민중화라는 장르를 강력한 인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획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은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노동자 투쟁 등이 늘면서 공동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유니폼의 개념이었다(사진 4). 주로 대동제, 통일 염원 선포식 등과 같은 행사에서 복장의 통일을 추구하였는데, 운동권의 경우 1년에 5~10벌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문구 위주였으나 점차 판화그림이 삽입되었고, 화가 오윤과 흥성담의 저항적 판화 그림이 주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문구의 내용은 '단결투쟁', '솔아 솔아 푸른 솔아', '통일된 조국에 살고 싶다' 등이었으며, 그림의 내용은 주로 민중적 삶, 죽창 들고 일어서는 모습, 노동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북치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 등 강렬하고 굵은 터치의 그림들이었다. 그림 사용은 구호사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림의 내용이 투쟁적 의미에서 점차 학교나 동아리의 단결을 표하는 그림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정서가 바뀌면서 귀여운 그림들로 바뀌게 되었다(사진 5). 이들의 기획 셔츠는 흰색 위주에서 붉은색, 자주색의 화려하고 선동적 색상으로 바뀌었다. 전국적인 행사에서는 문구를 정해주고 지역별로 색상을 구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단체 시위 복식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80년대 들어 국내의 경제가 성장한 결과이며, 경제적 여건이 나



〈사진 4〉 기획 티셔츠 입은 학생들.

80년대 학생운동, p.87.

22) 강해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6, pp.78-80.



〈사진 5〉 기획 티셔츠 입은 학생들, 광주일보 자료 제공

아지면서 행사용 시위복장을 따로 구입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미투쟁이 가속화되면서 민족 자주, 전통 고스,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운동권 학생들이 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한복의 본래 의미가 와전되어 투쟁적 의미가 첨가되기도 했다. 이 당시의 학생회장 후보나 여학생회장 후보들은 거의 모두 한복을 입고 선거 우세를 가졌으며 (사진 6), 일상적 복식을 입은 학생들 가운데서 한복을 착용한 학생은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었고, 강렬한 리더쉽을 보였다고 당시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당·이의 연구²²⁾에서도 캠퍼스에서 약식 한복을 입은 남녀학생을 보았을 때의 인상은 운동권이 연상될라고 할 만큼, 한복을 착용한 운동권의 모습은 80년대의 뚝뚝한 풍경을 보여 주었고, 이러한 민족 정신의 표출은 그 이후 개량된 생활복으로서의 한복이 많이 등장하게 하였다. 80년대 말부터는 개량 한복을 기획해서 집회용 단체복으로 착용하기도 했다.

학생시위에서 학생간부들은 선거, 학생회 출범식 등 대규모 집회서 한복을 착용하였는데 한복은 대표로서의 집중성을 높게 해주어 카리스마와 상징적 역할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민족성과 우리 것을 보존하려는 사상을 표출했다(사진 7).

‘90년도 전대협의장을 지낸 송갑석 전 전남대 총



〈사진 6〉 총학생회 선거 유세 모습.
전남대학교 학보사 자료제공



〈사진 7〉 학생회장의 한복입은 모습.
광주일보 자료제공

학생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학생 시위에서 한복 착용은 시위 대표자들이 8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착용하였으며, 반미 투쟁과 함께 문화적, 정신적, 민족적 전통을 대학에서 주도하려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물놀이 등이 학생 시위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고, 개량 한복이 90년대 일반인들에게 널리 착용된 것도 학생운동에서 주장한 우리 것 찾기 운동의 실효라 볼 수 있다. '87년 이후 겹정색과 진한 밤색의 두

루마기는 총학생회장 후보들의 상징이 되었고, 흰색 저고리에 겹정 통치마는 여학생 후보의 상징이었다. 흰색 저고리와 겹정 통치마는 개화기 여성 선구자들의 복식이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운동권 여학생들이 착용할 때 붉은 냉기를 함께 착용한 것이 북한을 연상케 한다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민중복이라고 불리는 흰색 농부복은 농악 학생들과, 투쟁위원회 간부 등 앞에서 활동하는 3~5명이 착용하고 시위를 했다(사진 8). 이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족성과 대중 앞에 선 사람으로서 선동성을 의복에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8〉 민중복 착용 모습. 광주일보 자료제공

한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려 했던 사상적 기저에는 80년대 후반 집요하게 주장했던 반미, 반제에 대한 의식이 내포되어 있었고, '모든 생활에 중대를 갖자, 우리 것을 갖자, 우리 역사를 바로 보자'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었고 인간의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총학생회장 후보들의 두루마기 착용에 있어 제대로 입지 않고 겉에만 두루마기를 걸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으나,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가 달라서 서울의 경우 속에는 일상복을 입고 겉에만 두루마기를 착용한데 비해 광주의 경우는 두루마기 속에도 정식으로 한복을 챙겨 입었다고 한다. 정권과 학생들간의 강한 대치 상황에서는 강한 지도자 상이 요구되므로 운동 대표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 연설을 하곤 하였지만, 이렇게 한복을 착용해서 후보의 강한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93년 들어 호령지면서 부드럽고 학생들에게 다가선다는 느낌의 일상복 착용으로 바뀌어 투쟁적 이미지를 함께 벗게 되었다.

학생회장이나 운동 대표자들은 평상시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입으려고 했으며, 대중적인 지도자상을 위해 대중들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 특히 이동시에는 수행원들과 거의 같은 복장을 하여 경찰과 부딪쳤을 때 도피를 쉽게 하려 하였다. 광주 지역의 학생회장들이 수수한 차림을 한데 비해, 다른 지역의 학생회장들은 예의를 위해 단정히 입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9>에서 보듯이 90년대의 시위에서 앞에 서있는 지도자들은 단정한 정장, 민족복, 혹은 기획 티셔츠 차림으로 시위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9> 학생운동 대표자들의 시위 복식,
뉴스초점, p.43

일반적으로 시위시에는 활동성을 고려해서 움직임이 편하고 옷에 대한 부담이 없는 청바지, 면바지, 군복바지를 입고 참여하였으며, 여학생들도 질기고 활동적이어서 시위 복식으로 비교적 청바지를 많이 착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반미 시위가 극심해졌을 때에는 미문화의 잔재라는 이유로 남학생들은 커피, 쿨라와 함께 청바지 착용을 거부하여서, 대표자들도 학생회장 재임시에는 청바지를 입지 않

았다. 나중까지 청바지를 착용하던 운동권 여학생들은 반미 시위가 고조되면서 청바지 거부에 동참하게 되었고 처음에 내세웠던 미국에 대한 반대 이유가 설득력이 약하게 되자, 꼭 끼는 청바지의 위생성을 지적하여 건강차원에서 공박하게 되었다. 이 때 외국에 로얄티를 지불하는 브랜드 옷 안 입기 운동도 같이 전개되었다.

시위시의 복장에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운동권이라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대중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획 셔츠같이 눈에 띠는 옷은 통일문제 시위, 대동체 등의 행사에서 착용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더 소박하고 남루한 외모였다 고 한다.

운동권은 수수함, 소박함, 자기봉사의 가치측면이 강해서 옷에 관하여는 학생다운 순수함과 실용성이 우선 순위를 두어 외모, 복식, 머리를 순수하게 하려 하였고, 옛은 하위개념으로 생각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의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의복을 투쟁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중성을 표방하며 입게 되었다.

이들은 의복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기에 일상복과 시위복을 구별하지 않았고, 옷에 대해 신경쓰는 것은 사치라 여겼고, 학교에서 합숙할 때에는 선 후배 간에 서로 돌려 입었으며, 부도님으로부터 의복비를 받게 되어도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책값, 의상 술값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옷을 돌려 입는 것은 옷에 가치를 안 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공동체적 성격으로 학문적 공동체 외에 생활의 공동체를 추구했다고 한다.

일반 여학생들이 스커트에 금높은 구두를 신고 다녀도 운동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커트를 입지 않고 활동에 편한 바지를 주로 착용했으며 스커트를 입었을 경우 '변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운동권 학생들은 외모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기에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와 민소매 옷을 입지 못하고

늘 긴 바지에 소매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한다. 색상에 있어서도 수수한 색의 점정, 회색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중간색을 많이 착용했으며, 유니섹스 의복 스타일이 단연 압도적으로 착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10>은 늘상 있어 온 시위를 위해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자는 80년대 여학생회의 포스터이다. 당시의 운동권 여학생들이 추구하는 참다운 여성미의 기준은 일하는 여성, 활동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었으며, 성을 상품화하고, 지나친 노출, 무비판적 서구 패션 도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운동권 여학생들의 경우 인간 본래의 장식 욕구를 억제한 채 동지로서의 입장에서 바지를 입고 다니며 투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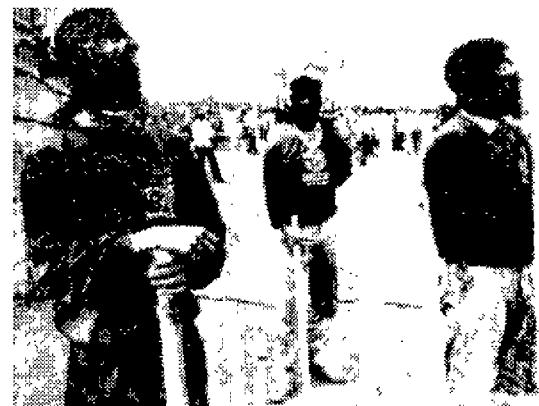
<사진 10> 여학생회 포스터, 광주일보 자료제공

80년대의 지루하고도 끈질긴 시위에서, 난무하는 최루가스에 대비키 위해 마스크와 화염병은 기본 시위 용품이 되었고, 마스크는 운동권의 필수품이었는데, 이는 최루가스를 막기도 했지만 얼굴이 가려져 신분노출을 피하는데 효과적이었다(<사진 11>). 마스크가 복면으로 바뀌어 얼굴을 좀더 많이 가려주었고 복면의 색이 조직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흑두건 시위 전위대가 등장하기도 하여(<사진 12>) 흑두건과 셔츠의 그림을 통해 시위 전용 복식을 착용했음 알 수 있었고,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기 위해 각목으로 무장하였다.

지도급 시위자들은 행사시에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기도 했으나 일반 학생 시위자들은 많이 착용하



<사진 11> 마스크와 기획티를 입은 시위대, 전남대학교 학보사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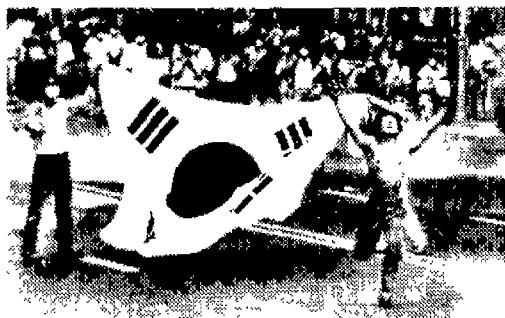


<사진 12> 흑두건 시위 전위대, 80년대 학생운동, p.73

지 않았고, 표시 나지 않기 위해 띠를 안 둘렀다고 한다. 붉은색 머리띠는 '90년부터 흰색띠로 바뀌어 거부감을 줄이려했다고 한다.

최루탄으로 이한열이 사망한 이후 최루탄 사용 반대 시위도 있어 의대생들이 '살인무기 최루탄을 추방하자'는 시위도 있었는데 이들은 의대생의 상징인 가운을 입고 참가하였다. 최루탄을 쏘지 말라는 학생시위에서 상의를 벗고 시위하기도 하였다(<사진 13>).

신체노출은 비폭력과 결단의 양면적 의지의 강한



〈사진 13〉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뛰어나오는 모습.
신문사진 100선, p.205

저항을 표시하고 있어, 비폭력을 주장하며 무장해제를 상징하려고 옷을 벗고 시위하는 경우와 삭발이 있었다. 삭발은 결의를 다지는 의미와 사회적 저항을 표시했는데 갑자기 삭발하는 경우는 없고 집회의 전술로서 이슈가 크거나 강도 높은 투쟁시에 실행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5배 정도 많았고 여학생의 삭발은 10배가 많았다고 한다. 〈사진 14〉는 89년 6월 1일 전남대에서 이철규 변사사건 사인 규명을 위한 삭발 결의 대회를 갖고 70명이 삭발한 모습이다.



〈사진 14〉 전남대생들의 삭발. 전날일보 1989.6.1

5.18의 강경 진압이 미국의 잠정적 뚝인 하에 이

투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끈질긴 반미 시위는 '90년 6월 광주에서 13개월만에 다시 문을 연 광주 미문화원 개원식을 반대하는 시위에서도 나타나서, 태극기를 앞에 두르고 시위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 15〉는 애국심을 표현하는 극한적 저항 모습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말 미국 대학생과 히피들이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서 성조기를 두른 것과 같이 대외를 향한 국가적 시위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진 15〉 태극기 두르고 광주 미문화원
반대 시위 모습. 전남일보, 1990.6.11

90년대 시위학생들의 복장은 좀 더 자유로워졌으며, 80년대 학생운동 이후 민족 전통 고수의 기치 아래 개량한복 착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기획한 개량한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사진 16〉. 개량한복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운동권의 이미지를 강하게



〈사진 16〉 개량한복 시위대 모습.
전남대 학보사 자료제공

나타내었으나 점차 일반인들이 민족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활동성을 가미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운동권의 저항복식이 모패션으로 확산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모자 착용이 유행됨에 따라 시위에서도 모자 착용이 많아졌다. 모자는 시위 시에 헛볕을 막아주고 얼굴을 가려주는 등 많은 편리함과 기능적인 이점이 있었다(사진 17)。



〈사진 17〉 남총련 시위에서 모자 착용,
광주매일 자료제공

'90년 투옥되었다 '95년 출소한 학생운동 지도자가 출소 후 놀란 것은 운동권 여학생들의 모습이 다른 여학생들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화장도 하고, 복식도 여성스럽고 패션성이 가미된 점이라고 했다. 이처럼 90년대 학생운동에서의 복장에 저항적 특성이 약해지고 변화된 것에는 90년대 운동권의 방향이 선회되고 있고 변혁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70년대까지 학생운동으로 친통을 겪었던 서구에서 80년대 들어 선진 고도사회가 이룩되면서 풍요로운 생활에 정착하려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서구의 대학가에서 자유주의와 체제반항의 상징이었던 히피족 스타일의 치렁치렁한 장발과 낭만한 복장이 캠퍼스에서 자취를 감추고,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짧아진 헤어스타일 등 학생 복장의 변화는 학생들이 전보주의에서 보수주의로 바꾸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²³⁾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적 성숙이 학생

운동에서의 복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겠다.

IV. 저항 패션으로서의 학생운동 복식

저항 패션은 모 패션에 대한 저항으로서 특이하게 구별되는 복식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학생들의 패션 경향은 엘리트 그룹으로서 당시의 모 패션을 선도하는 위치에서 서구 패션이 국민들의 생활에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70년대 초까지 당시의 대학생들은 주로 교복이나 남자 정장을 착용하였고, 70년대 중반 이후 캐주얼웨어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티셔츠와 청바지 등을 착용하여 성인 복식과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이후 학생들의 영캐주얼 웨어가 자리 잡혀 의복뿐만 아니라 대학생 스타일의 가방, 신발 등이 패션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모 패션과 비교하여 해방 이후 국내의 학생운동에 나타난 저항 패션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60년대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복 이외의 복식이 다양치 않아서 교복이나 정장차림으로 시위하였고, 이러한 복장은 당시의 대학생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을 상징하였다. 머리띠를 매어 저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착용하고 있는 의복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결의의 표현을 단체 복식의 하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시에는 교복을 주로 입었고, 후반에는 장발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거나, 교련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교련복은 활동적이기도 했지만, 교련교육을 반대하는 저항이 내포되어 있기도 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긴급 조치와 계엄령으로 시위가 많지 않아서 복식에서의 다양성이 많지 않았다.

23) 서시주, 세계 학생운동 격들의 현장, 백양출판사, 1986, pp.146.147.

80년대에는 시위도 많았고 학생운동 방법도 좀더 전문화되어서 행태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의 시위시에 가요를 부르며 투쟁한 것과 달리 80년대에는 투쟁자가 따로 있었다. 또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의복의 여유가 많았으므로 다양한 복식을 보여준다. 중반을 넘으면서 한글 문구와 민족화 그림을 넣은 기획 티셔츠와 한복, 개량한복, 청바지 착용 거부, 태극기 두르기와 같은 두드러진 저항적 복식을 나타내었고, 머리띠와 함께 마스크, 두건, 삭발에 이르기까지 최루탄으로부터 보호, 얼굴 가림 등의 다양한 목적과 저항을 상징하기 위해 다양한 두식을 하였다. 기획 티셔츠는 단체의 동질성과 일체감, 소속감 등을 불러 일으켰고, 한복의 착용은 두드러진 저항적 시위 복식으로 민족 자주, 반 외세, 민족 전통 고수 등의 상징성을 가진다. 두건과 삭발은 저항의 강한 의지 표명이었다. 80년대 학생운동에서 주장하였던 민족 전통 고수는 90년대 일반인들의 개량한복 착용이 많아지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여서, 운동권의 저항패션의 점차 확산되어 90년대 모 패션의 하나로 유행되었다.

90년대에는 좀 더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해서

간편한 일상복, 기획한 개량한복, 모자 착용 등이 있었다. 기획한 개량한복에는 저항적 시위 문구를 첨가하여 강하게 저항적 특성을 표출하였고, 모자는 당시의 유행을 따르기도 하였다. 모자는 편리한 기능성도 있어서 널리 착용되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화장과 여성스런 의복도 착용하게 되어서 저항적 형태는 약화되었다. 저항적 특성이 약화된 것은 90년대 들어 학생운동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운동권에서도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학생 운동에서의 착용 복식은 저항적 특성을 복식을 통해 표출한 저항 패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저항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복식에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학생운동에 나타난 복식의 형태와 저항적 상징성을 요약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학생운동에 나타난 저항적 복식의 특성을 학생운동의 특성에서 분석하기 위해 이상안²⁴⁾의 분류를 사용하여 1. 본질적 특성 : 사회운동 (social movement), 2. 집단행동적 특성 : 집합행동 (collective behavior), 3. 정책대상집단적 특성 : 학

<표 1>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저항 복식의 형태와 상징적 특성

복식 시기	표현된 의복 형태	상징적 특성	표현된 두식 형태	상징적 특성
해방이후 - 60년대	교복, 정장	대학생의 단정함, 엘리트 그룹 상징, 경제적 한계	머리띠	결의 표명
70년대	교복 교련복 청바지, 헐렁한 티셔츠	대학생 상징 작업복, 활동성, 저항 활동성, 청년문화	장발	기성세대 저항
80년대	일상복 기획 티셔츠 한복(민족복) 수수한 색(검정, 흰색 등) 청바지거부, 태극기두르기	활동성, 은익성 단체의 일체감, 경제적 중요 민족적 전통, 민족 자주 민족에 대한 이해, 순수함 결단표명, 반미	머리띠 마스크, 복면 삭발	결의표명 최루탄 막음 얼굴 가림 결단표명
90년대	일상복 기획 티셔츠 기획한 개량한복	활동성, 은익성 단체의 일체감 단체의 일체감, 민족전통	모자	편리함, 합리성

24) 이상안, 전계서, pp.82-87.

〈표 2〉 학생운동의 특성에 표현된 사상과 복식의 저항적 특성

학생운동의 특성	사상적 표현	복식의 저항적 특성
사회운동 측면	특정 문화지향 공유, 공동적 이익 - 정책 일반에 혁신 (민족주체, 민족 전통 추구)	청바지 거부운동, 한복 착용, 개량한복 착용
집합행동 측면	다수의 공동화, 협력화 - 여론, 유행, 취향, 이념을 바꿈	민중복 착용, 수수한 색의 의복, 노동자 복식 착용
학생집단 측면	학생 현실 참여, 정의감, 이상주의, 여론 축발 - 개혁적 행동	기획한 단체 티셔츠, 기획한 단체 개량한복, 삭발, 머리띠

생집단 (student group)으로 나누어 운동권의 이념이나 사상적 표현을 복식의 특성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V. 결 론

국내의 학생운동은 우리 나라의 정치,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엘리트 그룹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운동은 이상주의를 표방하여서, 학생의 순수와 진실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었을 때 여론을 축발하는 힘이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일정한 역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해방이후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복식은 학생다운 순수함의 표현과 함께 저항적 특성이 강하게 표출되어서 저항 패션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학생운동에서의 이러한 저항 패션은 80년대에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다가,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퇴색되고 약화되고 있었다.

학생운동에서의 복식의 특징을 보면, 60년대까지는 보유한 의복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복과 정장이 통학복이면서 시위 참여할 때에도 착용하였다. 교복과 정장은 이 당시의 대학생들이 사회의 엘리트 그룹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머리띠를 매는 것으로 시위 복식에서 저항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70년대의 학생운동에서는 특이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으나 60년대에 이어 교복을 착용하거나, 청바

지와 티셔츠, 교련복을 착용하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교련복은 교련을 반대하는 시위에서도 착용되었는데 이는 교련복이 활동적인 면도 있었지만, 약간은 저항적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80년대의 학생운동에서는 복식에서의 저항적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80년대의 경제 성장이 시위복식을 따로 구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왔다. 한글과 민중화 그림을 넣은 기획 티셔츠와 한복 착용, 청바지 거부, 태극기 두르기, 마스크, 두건, 삭발은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서의 저항적 특성을 강하게 시사하여서 민족자주, 민족전통, 반외세, 반미의 저항적 복식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90년대의 학생운동에서는 초반까지는 개량한복을 기획해서 단체로 착용하는 등 강하게 저항적 특성을 표출하였으나, 중반 이후 학생운동의 위상이 변하면서 복식에서도 점차 저항적 특성이 약화되고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복식 구별이 약해졌다. 개량한복은 운동권의 저항패션이 점차 확산되고 전이되어 90년대 모 패션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학생운동의 특성에 따른 복식의 저항적 특성을 보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청바지 거부운동, 한복 착용, 개량한복 착용 등으로 표현되었고, 집합행동의 측면에서는 민중복 착용, 수수한 색의 의복, 노동자 복식 착용 등으로 표현되었고, 학생집단 측면에서는 기획한 단체 티셔츠, 기획한 단체 개량한복, 삭발, 머리띠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운동에 표현된 복식은 저항적

특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모 패션과 차별이 있으면 서 모 패션에 영향을 주어 전이되기도 하였으므로 저항 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선미, 이기호,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개마서원, 1997.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6
- 김영국,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왕사, 1991
- 스즈끼히로오, 박동윤 역, 대학생과 학생운동, 창우사, 1990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 들베개, 1992
- 서시주, 세계학생운동 격돌의 현장, 백양출판사, 1986.
- 유석춘, 박병영, "한국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한상진, 양종희 편저,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 전예원, 1992.
- 이상안, 학생운동과 규제정책, 대영문화사, 1989
-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1997.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1, 2, 3권, 녹두, 1994
- 한국현대정치사상연구소, 80년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그 전망, 도서출판현사연, 1989
- 한상진, 양종희,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 전예원, 1992
- 한완상, 권태환 편저, 한국사회학, 민음사, 1997
- 격동의 시대 - 유신말기에서 6공화국까지-, 한국일보사, 1993
- 격동 한반도 새지평, 경향신문사, 1975
- 기자가 본 '92 100대 뉴스 사건 365일, 한국편집기자회, 1992
- 기자가 본 '95 100대 뉴스 사건 365일, 한국편집기자회, 1995
- 기자가 본 '96 100대 뉴스 사건 365일, 한국편집기자회, 1996

기자회, 1996

- 사진으로 보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1987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부록, 조선일보사, 1987
- 사진으로 본 갑격과 수난의 민족사 -1945년 해방에서 6.25전쟁까지-, 1988년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부록, 조선일보사, 1988
- 사진으로 본 해방 30년, 한국일보사, 1975
- KOREA 20년, 경향일보사, 1968
- 해방 30년사, 공동문화사, 1975
-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사건 -해방에서 제5공화국까지-, 신동아 1988년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Anti-Fashion Expressed in the Korean Student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pecifically, the external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anti-fashion expression in the Korean student movement after the 1945 Liberation.

The dress expressed in the student movement represented the purity of student and characterized resistance, and this character expressed strongly in 80s, faded from middle of 90s.

Until the 60s, the student movement was not characterized by, so activist students wore dress for school and demonstrated in school uniforms and suits. It symbolized students as an elite group of society. They added on head-bands to express resistance.

In the 70s, activist students wore school uniforms, school military training wear, blue jeans and loose shirts in demonstrations. They tried to express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older gen-

eration.

In the 80s, this period was remarkably distinguishing by the economic growth at that time. Activist students wore T-shirts with Korean letters and popular paintings specially made, Korean costumes, wrapped in the Taggeuki (Korean national flag), and refused wear on jeans because of anti-Americanism. They also wore masks, muffled their faces, and got their heads shaved. These anti-fashions are very strong expressions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spirit, national traditional

heritage, anti-foreign power and anti-American.

In the early 90s, activist students wore reformed Korean costumes specially made group uniforms, after that they wore casual everyday clothes with caps. They tried to express remarkable resistance in the early 90s, but after the mid-90s expression of resistance weakened and faded, so there was no distinction between activist and non-activist.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student movement changed after the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